논어 9편 자한 17장 · 원문·풀이

子在川上曰：「逝者如斯夫！不舍晝夜。」

독음 · 자재천상왈 서자여사부 불사주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흐르는 물을 보며 지나가는 것은 이와 같아 밤낮을 쉬지 않는다고 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在 있을 재 재 / 川 내 천 천 / 上 윗 상

曰 가로 왈 / 逝 갈 서 서 / 者 놈 자 / 如 같을 여 여

斯 이 사 사 / 夫 지아비 부 부 / 不 아닐 불 / 舍 집 사 사

晝 낮 주 주 / 夜 밤 야 야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